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환경*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 economic lives and their economic educational environment amo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김정훈**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전공, 생활자원개발연구소

Jung Hoon Kim

Human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for Better Livi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is to explore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s money and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on children's economic behaviors. The subjects are elementary students(N= 123) from first grade to sixth grade. The survey consists of question items of money ethics, attitudes towards money, consumer ethics, parents' attitudes toward economic education, and children's economic practices such as management of allowance, income, saving and savings accou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tudents show the double standard in attitudes to money, thinking of money as positively being important, at the same time, as being negative social value. Second, the parents play positive models in children's economic education. However, their efforts are not enough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have desirable economic habits. Therefore, economic education is first needed for the parents and then for children.

Keyword: economic education, economic behaviors, attitudes towards money, consumer ethics

I. 서론

어린이를 경제적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최근까지도 어린이들이 성인, 특히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자이고,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나 능력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는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교육영역으로서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수 감소나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들과 같은 가족적, 인구학적 변화와 어린이 소비자들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어린이 산업의 발달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들로 인해 이제 어린이는 커다란 마켓과워를 가진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판단력이나 인

식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지고, 또한 직접적인 소득력이 부족하여 돈에 대한 개념도 실제적이지 못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들의 경제적 무관심과 소비 욕구의 증대, 충동과 과시 소비에 따른 낭비경향 등의 불건전한 소비행동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재화의 귀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며, 씹씹이가 헤프고, 자기 물건을 간수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잃어버린 학용품을 찾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행에 따라 새로운 것을 사고 싶어 대충 쓰고 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효정, 2007).

이런 보고와 사회적 관찰 결과는 어린이들의 소비태도나 가치관은 어린 시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연결되며,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가치와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관찰적

* 본 연구는 2008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Jung Hoon Kim

Tel: 063) 850-6650, Fax: 063) 850-7301

E-mail: osu@wonkwang.ac.kr

보고로 인한 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에 대한 평가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해석한 유추일 뿐 우리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 자신들의 경제생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정보 없이 어린이들에 대한 경제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그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태도에 대한 초기적 실증연구로서 어린이들의 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제생활태도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린이들의 현재의 경제생활 행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태도와 행동에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가정의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가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II. 관련 연구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이들의 용돈관리나 금전관리 행동, 소비욕구, 소비자 능력등과 같은 소비행동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곽병로, 1997; 김명순, 1983; 김미라, 황덕순, 1999; 김효정, 2007; 송미애, 이승신, 2004; 정영선, 2002; 황동신, 2003; 황현선, 1996;)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소비자능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황덕순, 김미라, 1997), 전체적인 소비자 행동의 합리성 수준은 낮지 않았지만 처분행동의 합리성 수준이 저조했고, 사용행동의 합리성은 학년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처분행동의 합리성 수준이 낮았다(곽현정, 이승신, 2003). 어린이들의 소비생활도 비교적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하류층일수록, 군지역이하 어린이들이 소비생활 문제 수준이 높았다(송미애, 이승신, 2004)

용돈과 관련해서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어린이들이 구매행동에 더 합리적이었으며(곽현정, 이승신, 2003),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은 용돈지급주기, 용돈금액에 대한 만족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김효정, 2007) 또한 용돈을 사용한 후 부모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 부모님과 의논하여 용돈 액수를 정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소비행동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7; 황동신, 2003).

연구들은 부모와 가정의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금전관리교육이 자녀의 행동에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는데, 가정에서의 소비자 경험, 어머니의 영향력이 소비자 능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곽병로, 1997; 황현선, 1996)와 가정소비자교육 경험 수준이 높을 수록 소비자 행동의 합리성이 높다는 결과(곽현정, 이승신, 2003; 송미애, 이승신, 2004)들이 그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들과 더불어 부모의 의도적인 금전관리 교육과 부모들의 자녀 소비자 사회화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되었다(김명순, 1983; 김효정, 2007)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이나 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신동주 & 이재민, 1997; 한진수, 2003), 소유욕은 9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15세까지 별 변화가 없으며, 12세에서는 소유욕에 일시적인 퇴보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초등학교 세서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집단주의적 교육의 영향. 물질주의는 인생관과 같은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일정수준에 머무르고 12세에 일시적인 퇴행현상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행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물질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의 기준은 절대적 평등과 필요에 입각한 분배에서 기여에 입각한 분배의 개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제 사회화는 경제현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인 미덕인 검소와 절제 등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적 만족을 위한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경험이 불가능한 경제현상에서는 잘못된 추론을 한다(신동주, 이재민, 1997). 그런데 이들 초등학생들의 경제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역, 이윤, 은행 및 이자율, 사적 재산 소유권 등과 같은 경제 개념의 정답률이 19.46%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들이 경제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진수, 2003)

III.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7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기존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질문 문항들을 초등학생의 어휘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뒤, 3학년에서 6학년의

<표 1> 화폐 윤리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관련 문항들	돈의 사회성 인식	돈 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750		
나는 돈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54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678		
돈이 많으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	.599		
돈은 중요하다	.683		
나는 돈을 쓸 때, 생각을 많이 한다.		.845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90	
나는 돈 쓰는 계획을 잘 한다		.746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악마와 같다			.830
돈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된다			.848
% of Variance	24.697	16.658	16.202
Total Variance	57.558%		

각 학년 2명씩의 학생들에게 사전 조사 및 면접을 통해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사한 뒤 문항들을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질문지 조사 후 총 123명의 질문지가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들은 남학생 77명(64.2%), 여학생 43명(35.8%)이었으며,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인 중학년이 92명(74.8%),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인 고학년 31명(25.2%)이었다.

2. 조사도구

질문지는 경제생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화폐윤리(Tang, 1992 & 1993), 물질적 가치 성향(홍은실외, 2001), 소비자 윤리(심상현 2000; 김정훈, 2004)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태도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그 외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 경제생활 행동으로서 용돈의 규칙성, 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저축통장의 비밀번호에 대한 지식, 저금통 저축 여부에 따라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등이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소비자 윤리에 대한 태도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45이상과 상대적인 적재량 비중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요인구조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통계패키지가 이용되었다.

그 결과, 화폐윤리관련 문항들($\alpha=.5921$)은 3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57.56%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돈의 사회성 인식, 돈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명명하였다(표 1).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가치성향 관련 문항들은($\alpha=.6828$)은 3개의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59.03%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소비, 소유가치, 생활중심 가치로 명명하였다(표 2).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윤리관련 문항들은($\alpha=.8526$)도 3개의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69.47%였고, 이들 요인들은 문항들의 내적 관계성과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오용, 불법, 속임과 손상으로 명명하였다(표 3). 이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소비자 윤리성이 더 크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 윤리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환경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별과 학년에 따른 비교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변수들에 따른 비교는 그룹의 빈도수가 적고, 차이가 커서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분석(용돈의 규칙성, 홈 아르바이트 경험

<표 2> 물질적 가치성향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소비, 소유 가치	생활 중심 가치
좋은 물건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702		
생일에는 비싼 선물을 받고 싶다	.760		
물건이나 돈을 많이 갖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성공 중 하나이다	.665		
겉모양이 특별하고 비싸 보이는 것을 사고 싶다	.770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	.574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뒤지고 싶지 않다		.851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634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신경쓰지 않는다			.645
항상 필요로 하는 것만 산다			.802
% of Variance	28.204	15.662	15.161
Total Variance		59.027	

<표 3> 소비자 윤리의 요인 분석 결과

	오용	불법	속임
공동 화장실에서 필요한 것보다 휴지를 많이 뜯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한다	.666		
물건을 뜯어 보다가 살 때는 뜯지 않은 것을 갖고 나간다	.650		
자기가 실수로 망가뜨린 상품을 교환해 달라거나 무료로 수리해 달라고 한다	.833		
맥도널드 같은 곳에서 케첩이나 냅킨 같은 것을 함부로 많이 사용한다	.802		
길거리에서 허가없이 복사해서 파는 음악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산다		.554	
책 등을 사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한다		.812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친구에게도 복사해 준다		.905	
영화나 음악 테이프 등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824	
가게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내라고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적게 내고 간다			.826
상점의 물건을 만지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덮어두고 나온다			.879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품의 포장을 뜯어 본다			.737
% of Variance	24.487	24.291	20.690
Total Variance		69.468%	

여부, 저축통장의 비밀번호에 대한 지식, 저금통 저축 여부) 및 Kruskal Wallis H 분석방법(가정경제 수준)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분석과 해석

1. 경제생활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65.0%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고, 집 안팎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73.0%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저축 목적이 있어서가

약 36.6%, 그냥 돈이 벌고 싶어서가 18.3%였으며, 기타 이유가 45.1%였다.

대부분의 어린이들(82.6%)은 저축을 하기위해 저금통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저축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87.6%나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통장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비밀번호 인지 여부는 21.7%의 어린이들만이 알고 있어 통장은 갖고 있되 부모가 통장을 관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표 4).

어린이들의 상대적인 경제환경 수준 인식은 우리 집과 친구들 집을 비교하여 누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제로는 친구 집이 훨씬 잘산다에서 우리집이 훨씬 잘 산다의 5단계로 질문하고,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표 4>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생들은 주거지 근처의 학교에 다니도록 되어있고, 주거단지에 따라 비슷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탓으로 대부분

<표 4>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123)

	N(%)
성별	
남학생	77 (64.2)
여학생	43 (35.0)
학년	
중학년	92 (74.8)
고학년	31 (25.2)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나?	
네	78 (65.0)
아니오	42 (35.0)
집 안팎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나?	
네	81 (73.0)
아니오	30 (27.0)
아르바이트 이유	
그냥 돈이 벌고 싶어서	13 (18.3)
저축 목표가 있어서	26 (36.6)
기타	32 (45.1)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있나?	
네	95 (82.6)
아니오	20 (17.4)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통장이 있나?	
네	106 (87.6)
아니오	15 (12.4)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	
네	26 (21.7)
아니오	94 (78.3)
우리집은 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나?(상대적 가정경제상황 인식)	
내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7 (6.0)
비슷비슷하다	84 (73.0)
우리 집이 더 잘사는 것 같다	24 (20.8)

의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우리 집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73.0%). 그런데 우리집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6.0%) 보다 더 많았다(20.8%)(표 4).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축되어있는 금액은 약 679,206원으로 최소값은 11000원, 최대값은 500만원이었다. 또한 어린이들은 집안팎에서 한 아르바이트의 대가로 평균 3454원을 벌었으며, 최소값 500원에서 최대값 25000원으로 이는 일의 종류 및 임금을 받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부모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일을 했을 때 한번의 작업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1주일, 또는 1달 단위로 지불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생활 태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태도는 화폐윤리, 물질가치 성향, 소비자 윤리영역에서 조사되었는데,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화폐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M=3.82),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는 것(M=3.14) 보다는 돈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M=3.47) 있었다.

또한 물질 가치 성향은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가장 높았고(M=3.80),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성향도 매우 높았다(M=3.79).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윤리의식은 높은 편으로 오용(M=1.77)이나 불법(M=1.83)을 행하는 면에서의 소비자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속이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허용하는 의식(M=1.39) 보다 높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비자 비윤리 경향보다는 소극적인 비윤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

<표 5>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경제생활 태도 및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M(SD)
화폐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14(.92)
돈 관리	3.82(.8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7(1.26)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3.79(.90)
소비, 소유 가치	2.87(.87)
생활 중심 가치	3.80(.90)
소비자 윤리	
오용	1.77(.82)
불법	1.83(1.04)
속임	1.39(.62)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	
부모의 소비패턴	4.21(.66)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3.55(1.16)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3.72(1.20)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린이 자신들의 소비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윤리문제에는 더 허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3.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들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어린이들에게 관찰

대상이 됨으로써 경제역할 모델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비패턴, 가계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태도, 경제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여, 부모의 점수를 평균하여 부모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경제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영역에서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절약하고, 계획적인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M=4.21), 부모가 자신들에게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M=3.72).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들의 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였다(M=3.55)(표 5).

4. 경제생활 태도와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윤리에서 돈관리,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오용,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소비패턴과 경제교육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돈관리에 대해 자신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오용에 대한 소비자 윤리의식도 여학생들이 더 높았다. 물질가치 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소비 패턴이 알뜰하고, 부모가

<표 6> 어린이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의 차이

		성별		t p	학년		t p
		남학생	여학생		중학년	고학년	
화폐 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11	3.18	-.545	3.07	3.38	-1.20
	돈 관리	3.66	4.08	-3.02***	3.83	3.77	.437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6	3.41	.131	3.48	3.44	.239
물질 가치 성향	사회적 가치	3.74	3.93	.790	3.77	3.88	.120
	소비, 소유 가치	2.94	2.80	-1.03	2.87	2.86	-.590
	생활 중심 가치	3.75	3.86	-.679	3.83	3.70	.734
소비자 윤리	오용	1.90	1.54	2.22**	1.67	2.11	-2.41**
	불법	1.83	1.85	-.169	1.90	1.61	1.93*
	속임	1.43	1.33	.829	1.36	1.47	-.727
가정의 경제교육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4.10	4.39	-2.46**	4.30	3.92	.302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3.49	3.63	-.565	3.65	3.25	.154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3.51	4.04	-2.36**	3.78	3.54	.982

* $p < .10$, ** $p < .05$, *** $p < .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에게 경제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윤리와 물질가치 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용과 불법관련 소비자 윤리태도와 부모의 소비패턴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중학년 보다 고학년들이 오용에 대해 더 비윤리적이었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고학년들보다 중학년들이 더 비윤리적이었다. 부모의 소비패턴에 대해서는 중학년들이 고학년들보다 부모들이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 가정의 상대적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차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인식하는 가정의 상대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물질적 가치성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 생활 중심 가치, 속임과 손상에 대한 소비자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의 모든 하위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자기집이 친구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물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향을 더 강하게 보였으며, 생활 중심적 가치 성향도 가장 강했다.

또한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자기집이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이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보다 속임과 손상 관련 소비자윤리의식이 낮았고, 그 차이가 컸다.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는 자기집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훨씬 더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4)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

<표 7>에 따르면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는 화폐윤리의 돈의 악마성, 즉 돈의 부정적인 유혹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보다 돈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마성을 지녔다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5) 홈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아르바이트 유무에 따라서는 경제생활 태도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의 어느 하위변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 어린이들의 가정의 상대적 경제수준 인식과 용돈의 규칙성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 비교

		가정경제			Mean Rank	용돈의 규칙성		Mann-Whitney U
		친구들이 잘 산다	비슷 비슷	우리집이 잘 산다		예	아니오	
화폐윤리	돈의 사회성 인식	34.07	60.33	54.54	4.34	67.33	46.56	1052.50
	돈 관리	45.93	55.43	63.21	1.89	58.57	59.79	1525.5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7.36	53.98	55.33	.10	52.11	62.90	1144.0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57.83	55.27	60.35	.47	58.00	59.49	1369.50
	소비, 소유 가치	36.58	54.19	66.98	5.38*	61.21	54.71	1463.00
	생활 중심 가치	61.83	51.60	69.40	6.06**	58.02	57.96	1480.50
소비자 윤리	오용	41.70	55.26	52.20	1.04	58.26	51.82	1241.00
	불법	46.40	56.39	47.05	2.04	56.01	54.56	1348.00
	속임	29.50	57.92	45.32	7.34**	55.73	56.50	1384.0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60.43	52.62	70.98	5.97**	59.91	58.76	1565.00
	부모의 가계알림 태도	42.90	46.77	67.42	8.27**	50.77	56.06	1069.00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43.20	48.57	64.85	5.38*	53.49	53.53	1241.50

* $p < .10$, ** $p < .05$, *** $p < .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Mean Rank는 Kruskal Wallis H 결과임.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8> 홈 아르바이트 경험과 저금통 저금 유무

		홈아르바이트 경험		Mann-Whitney U	저금통 유무		Mann-Whitney U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화폐 윤리	돈의 사회적 인식	54.55	58.03	1124.00	59.02	49.89	758.00
	돈 관리	54.49	56.33	1145.00	57.66	50.50	738.0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1.04	54.70	953.00	51.83	62.91	569.5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52.95	56.83	1133.00	53.92	67.50	830.00
	소비, 소유가치	54.34	54.93	1049.00	56.67	55.61	603.00
	생활 중심 가치	52.75	55.50	1058.50	58.52	39.00	510.00**
소비자 윤리	오용	51.51	53.44	963.00	55.68	46.21	688.00
	불법	51.51	53.44	963.50	53.80	52.11	800.00
	속임	50.09	57.96	526.00	53.26	57.45	770.5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55.06	54.84	1155.50	57.04	56.79	889.00
	부모의 가게알림 태도	47.85	48.39	907.50	52.29	40.33	485.00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49.36	48.11	941.00	53.48	40.88	518.00

* $p<.10$, ** $p<.05$, ***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저금통 유무에 따른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통 유무에 따라서는 물질의 사회적 가치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에서 부모의 가게 알림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저금통이 없는 어린이들이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부모들은 가게에 대해 알려주는 경향은 더 낮았다.

7) 통장 유무에 따른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명의의 통장 유무에 따른 차이는 물질적 가치 성향의 하위변수인 사회적 가치 인식과 오용과 관련된 소비자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이 통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물질의 사회적 가치 인식이 훨씬 낮았으며, 오용에 대한 소비자 윤리

<표 9> 통장 여부와 통장의 비밀번호 인식에 따른 경제생활 태도 비교

		통장 유무		Mann-Whitney U	비밀번호 알기		Mann-Whitney U
		있다	없다		예	아니오	
화폐 윤리	돈의 사회적 인식	59.66	66.37	699.50	66.23	58.26	1047.00
	돈 관리	60.30	54.03	690.50	63.26	57.84	1043.50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57.18	51.71	619.50	58.62	55.24	1009.50
물질적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60.94	45.80	610.00*	53.38	59.98	1155.00
	소비, 소유가치	57.92	70.33	567.00	57.92	59.31	1037.00
	생활 중심 가치	57.18	68.14	579.00	46.65	61.31	862.00**
소비자 윤리	오용	58.98	37.58	397.50**	58.54	55.30	983.00
	불법	56.85	49.58	553.50	65.98	52.58	780.50*
	속임	56.89	53.54	605.00	65.60	53.35	813.50*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	부모의 소비패턴	62.79	40.63	489.50**	57.81	59.98	1152.00
	부모의 가게알림 태도	54.09	44.54	456.50	60.16	50.08	796.00*
	부모의 경제교육 태도	54.27	51.83	544.00	61.56	51.14	790.50

* $p<.10$, ** $p<.05$, *** $p<.01$

태도 경향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됨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성향, 어린이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크며, 소비자 윤리는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식이 더 높았다.

8) 통장 비밀번호 알기에 따른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명의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른 차이는 물질적 가치성향에서 생활중심 가치와 불법과 속임, 손상의 소비자 윤리, 부모의 가게 알림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물질에 대해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더 강했다. 또한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불법과 속임, 손상과 관련한 소비자 행동 시 소비자 윤리성이 더 낮았고, 부모들의 소비패턴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게에 대해 알려주시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 3학년 이상의 초등학교생들을 질문지 조사하였다. 총 123명의 질문지가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들은 남학생 77명(64.2%), 여학생 43명(35.8%)이었으며, 중학년이 92명(74.8%), 고학년 31명(25.2%)이었다.

질문지는 경제생활 행태와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화폐윤리, 물질적 가치 성향, 소비자 윤리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화폐윤리관련 태도(돈의 사회성 인식, 돈관리,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물질적 가치성향(사회적 가치, 소비, 소유가치, 생활중심 가치), 소비자 윤리태도(오용, 불법, 속임)는 각각 3개씩의 하위변수로 요인화되었다.

연구 결과, 1)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화폐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돈을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돈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절약하고, 계획적인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부모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들의 가게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다.

2)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돈관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소비자 윤리의식도 더 높았다. 또한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소비 패턴과 경제교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중학년보다 고학년들이 소비자 상황에서 오용행동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고학년들보다 중학년들이 더 허용적이었다. 중학년들이 고학년들보다 부모들이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자기집이 친구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물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향을 더 강하게 보였으며, 가정의 경제교육 환경이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친구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속임과 손상에 대한 소비자 윤리의식이 가장 높았다.

5)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는 어린이들보다 돈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금통이 없는 어린이들이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부모들은 가게에 대해 알려주는 경향은 더 낮았다.

6)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이 통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물질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낮았으며, 소비자 윤리 의식이 더 높았다.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물질에 대해 생활중심 가치 성향이 더 강했다. 또한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소비자 행동 시 비윤리적이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게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물질적 가치성향을 갖고 있고, 화폐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행동적 측면에서는 윤리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아직 독립적인 소비자 경험이나 영역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윤리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부모들은 용돈을 주고, 통장이나 저금통을 갖도록 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그것들이 어린이들의 경제적 태도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소비행동의 합리성을 확립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부모들은 경제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어린이들을 가게의 일원으로서 참여시키고, 가게를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게하는 등 생활 속 경제교육을 하기보다는 언어로써 경제교육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통장은 갖고 있으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매우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돈을 관리하거나 통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저축과 금전관리를 가르치기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자기 집이 더 잘산다고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경제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경제교육 환경이 더 바람직한데도 더 비윤리적이고 물질중심적 가치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경제지도층들의 경제적 태도가 어린이들에게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우리 초등학생들의 소비생활 영역과 양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해도 화폐나 물질에 대한 가치나 태도나 소비자 윤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경제생활에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고, 실제로 현재 부모들이 경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에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부모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다양한 장에서 프로그램화 될 수 있으나 경제교육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원칙과 가이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올바른 경제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명한 경제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도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도 부모들의 관심과 역할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 경제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경제생활의 특성 상 어린이 경제교육은 부모의 협조와 부모의 경제적 가치관과 태도가 바르지 않고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초등학생, 경제교육, 경제생활, 화폐윤리, 물질주의, 소비자 윤리

참 고 문 헌

- 강희숙, 이학규(2001)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의 소비자행동 연구: 선물구매행위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12(2), 37-72.
- 곽현정, 이승신(2003) 아동소비자의 소비자행동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71-87
- 김미라, 황덕순(1999) 아동소비자의 구매요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6차 학술대회 -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127-137
- 김정훈(1995) 전주, 익산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돈사용 태도 유형. *원광논문집*, 30, 493-502
- 김정훈(2004) 소비자 특성에 따른 소비자 비윤리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417-423
- 김효정(2004)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8), 77-93
- 김효정(2007) 아동의 소비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기능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73-283
- 박미선, 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서정희(1998) 어머니와 교사의 학령전 아동소비자 교육 요구 분석: 울산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81-98.
- 성영애 외 5인(2001) 아동소비자의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1-129
- 송미애, 이승신(2004) 아동 소비자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81-97
- 신상헌(2000) 청년층 소비자들의 상거래 윤리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153-168
- 한진수(2003) '어린이와 경제교육' 어린이와 경제교육. *한국 어린이 육영회*, 2-33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황덕순, 김미라(1997) 아동의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2), 119-134
- Furnhan, A. & PO. Thomas(1984) Adult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socialization of 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7, 217-231
- Furnham, A. & A. Cleare(1988) 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economics: prices, wages, investments and strik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9, 467-479
- Tang, T.L.P.(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97-202
- Harruh, J. & M. Friedman(1990) Economic socialization in child in a Midwestern American community,

-
-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1, 495-513
- Leiser, D. & G. Sevon, & D. Levy(1990) Children's economic socialization: summarizing th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en countries. *J. of Economic Psychology*, 11, 615-631
- Tang, T.L.P.(1993) The meaning of money: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93-99
- (2008. 3. 18 접수; 2008. 5. 30 채택)